다복다복 多福 복주머니

복주머니

정읍시립박물관

1년의 시작, 설

설은 음력 1월 1일로, 우리나라 대명절 중 하나입니다.
설은 '연시', '세초'라고도 하는데 모두 한 해의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설에는 친척이나 자손들에게 장신구이자 부적과 같은 의미가 있는 물건인 이것을 선물했는데, 무엇일까요?

정답은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는 갖가지 색깔의 비단이나 무명천으로 만드는데, 둥그스름한 모양의 두루주머니나 양 모서리에 각이 진 귀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 수壽·복福·부富·귀貴·희囍 등의 글자나 십장생, 박쥐, 국화 무늬를 수 놓습니다. 복주머니를 차면 사악한 것은 물리치고 복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복주머니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겨 차는 장신구였습니다.

2021년 새해의 복을 가져다줄 복주머니와 예쁜 한복을 입고 곱게 드릴 댕기를 만들어보아요.

다복다복 多福 복주머니

준비물

체험키트에 들어있어요

안감 2장, 겉감 2장, 실, 바늘, 돗바늘
매듭 끈, 주머니 도안

집에서 준비해주세요

연필, 시침핀, 가위, 자, 송곳

하나

안감 천 1장의 뒷면 위에 도안을 놓고 연필로 따라 그려요

창구멍(안팎을 뒤집어 빼내기 위해 꿰매지 않는 부분)을 반드시 표시해요

다복다복 多福 복주머니

박음질

안감-뒷면

겉감-앞면

둘

겉감 천의 앞면이 위로 오게 놓고 그 위에 안감 천의 뒷면이 위로 오게 겹쳐요. 그리고 상단 직선 부분만 박음질해요

다복다복 多福 복주머니

셋

펼쳐서 겉감끼리 마주보게 포갠 뒤 도안이
그려진 안감이 맨 위로 오도록 반절 접어요

다복다복 多福 복주머니

넷

창구멍을 제외한 곡선 부분을 박음질해요

4장을 한꺼번에 박음질해요

다섯

도안이 그려진 안감 1장을 제외한
나머지 3장의 창구멍을 한꺼번에 박음질 해요

여섯

박음질한 선을 기준으로 0.7cm를 남기고 가위로 잘라요

다복다복 多福 복주머니

일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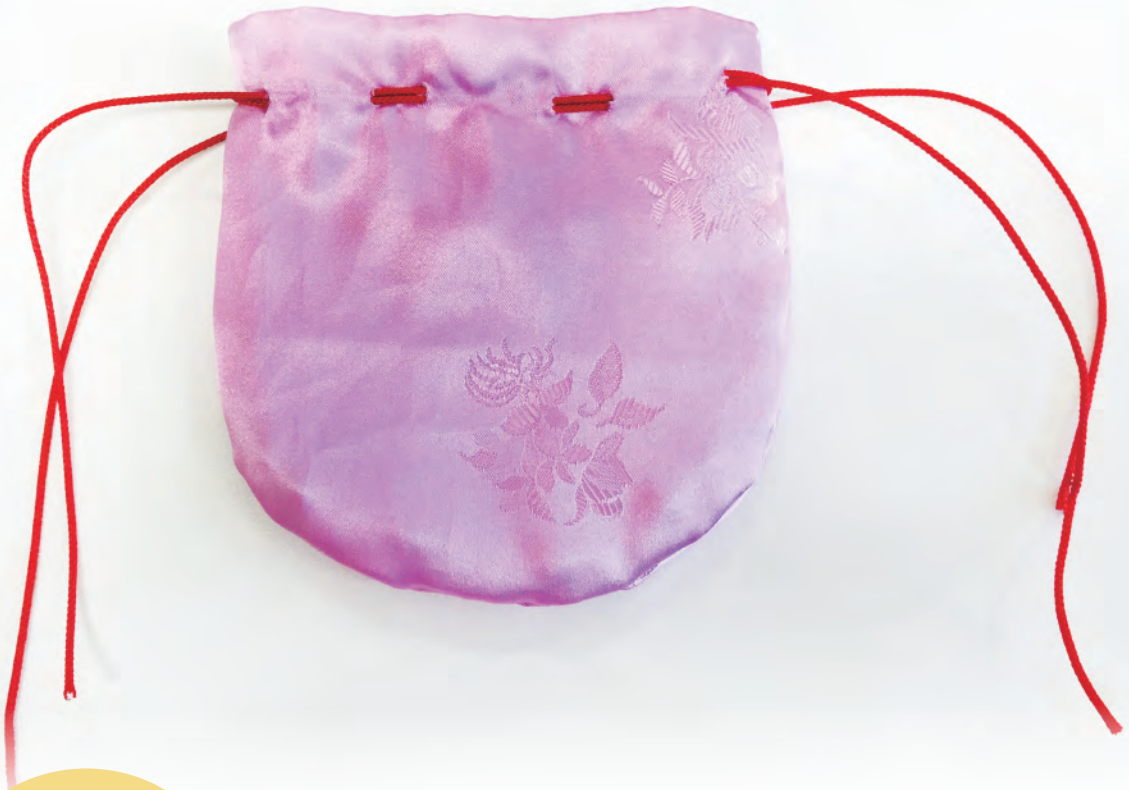
창구멍으로 천을 뒤집고 창구멍을 공구르기해요

다복다복 多福 복주머니

여덟

겉감이 나오도록 뒤집어서 주름을 잡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다복다복 多福 복주머니



아홉

돗바늘을 이용해 매듭 끈을 넣어요

완성

매듭 끈 양 쪽을 묶어 완성해요